

향후 일본의 접속료 규제방향 분석

송연경, 변재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A study on the future of regulation on fixed network interconnection in Japan

Song Yeonkyung, Byun Jaho
ETRI
syk63213@etri.re.kr, jhbyun@etri.re.kr

요 약

최근 세계적으로 접속료가 인하되는 추세에 반하여, 일본의 2003~2004년도 유선망 접속료는 평균 4.8%가 인상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고정전화의 급격한 트래픽 감소를 접속료 산정시 반영한 결과이다. 2005년 이후에도 트래픽 감소로 인한 접속료 산정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본 총무성은 이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일본의 유선접속료 산정 방법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접속료 정책 방향을 살펴보았다.

1. 서론

일본은 실제 방식으로 산정되었던 접속료를 2000년 이후 「장기증분비용방식」으로 산정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구축된 것이 장기증분비용 모델이다. 장기증분비용 모델 연구회는 제1차 모델을 1999년 9월, 제2차 모델은 2002년 3월에 각각 구축하였으며 그 산정결과를 2000~2002년도(제1차모델), 2003~2004년도(제2차모델)의 접속료 산정에 이용하였다.

총무성은 2003년 9월부터 장기증분비용 모델 연구회를 재개해, 전기통신분야를 둘러싼 환경변화를 토대로 2005년 이후 접속료 산정에 적용할 신모델(제3차 모델)을 2004년 4월 공표하였다. 이에 대해 총무성은 2004년 4월 정보통신심의회에 자문을 구했으며 2004년 7월 정보통신심의회는 2005년 이후 접속료 산정 방법 및 NTS 코스트 취급과 관련된 답신(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일본의 장기증분비용모델은 미국모델을 참고로 하면서, 일본 법령제도 및 지리적 조건 등을 가미한 일본 독자적인 모델이다. 일본의 통신시장 환경을 제2차 모델에 반영함으로써 접속료를 인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 달리 트래픽 감소를 이유로 접속료를 인상하는 정책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계속되는 고정전화 트래픽 감소로 향후 유선접속료의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총무성은 접속료의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적 의도를 2005년 이후에 적용할 LRIC 3차 모델에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현재 일본의 유선망 접속료 산정에 이용되는 LRIC 2차모형 및 2005년 이후 접속료 산정기준을 위해 수정된 3차모형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일본의 접속료 정책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장기증분비용 모델의 개요

1999년 9월 장기증분비용모델연구회가 구축한 모델을 제1차 모델이라 한다. 일본의 장기증분비용모델은 미국모델을 참고로 하면서, 일본 법령제도 및 지리적 조건 등을 가미한 일본 독자적인 모델이다.

1차모델은 전화 및 ISDN에 대해 비용산정을 하며, 현행 지정전기통신설비에 해당하는 설비를 모형에서의 설비량 산정대상으로 한다. 모형은 가입자선 모듈, 네트워크 모듈, 국사 모듈 및 비용모듈의 네 가지 모듈로 구성되며 이는 외국모형과 기본적으로 같다. 필요한 네트워크 요소의 규모를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설비용량과 투자액을 산출한다. 투자액이나 설비용량을 토대로 필요한 운용비용을 산정하고 이들을 연간경비로 환산하고 세분화 요소단위나 지역단위